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훈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제6대 안수집사 20명, 34대 권사 40명 임직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22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제6대 안수집사 20명과 제34대 권사 40명의 임직식을 가졌다.

당회장 이종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임직식에서 윤명식 장로가 기도를, 신복운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신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청지기는 진실하고 순결하며 힘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철저한 심일조 생활을 하고,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가 끝난 후 이종훈 목사의 사회로 임직자들과 교우들이 각각 서약을 하고, 당회원들이 피택된 안수집사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서로 악수례를 마친 후 이종훈 목사가 임직자들이 충현교회의 안수집사와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임직자들과 교우들을 권면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박영희 목사는 안수집사들에게 “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증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봉사(공제와 구



제)에 힘써야 한다.”고 했고, 권사들에게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참소치 않으며 교훈과 위로에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윤영탁 목사는 교우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심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임직자들을 대표하여 손철 집사가 답사를 했는데, 교역자들과 장로들을 도와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직식에서는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성경을 선물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직자들이 교회에 기념품을 하거나 일체의 축품 수수를 금하여 한국 교회에 본을 보이기도 하였다.

〈안수집사〉 손 철, 권명옥, 이관섭, 김 신, 이승철, 박상준, 채수경, 정홍식, 최운덕, 김구형, 김점석, 안동현, 윤봉준, 이재원, 김영수, 김단용, 김승배, 박찬섭, 김영은, 김준권

〈권 사〉 이명자, 명정옥, 홍양래, 정민자, 전성자, 홍풍작, 김준성, 김선미, 장영저, 유병순, 이영영, 최정기, 정정숙, 최정옥, 김용래, 이영자, 박순옥, 이귀애, 이미재, 임옥환, 임경자, 한경숙, 임신실, 김정남, 이해수, 변성옥, 김정옥, 조숙호, 최석주, 나선애, 김준성, 임봉옥, 권오순, 최무순, 유창순, 유보희, 백종숙, 장미산, 방어순, 이말분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수요 1부 예배가 끝나고 현관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봉투 두 장을 내밀고는 쓴살같이 사라진 성도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도님이 누구시며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셨는지 너무나 황급히 사람들 틈으로 숨어버리셨기 때문이지요.

그 봉투에는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한 건축헌금과 중국, 연변에 신학교 건축을 위한 선교헌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액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과부의 열전 두 닢처럼 자기 전부를 바치는 심정으로 드린 이 헌금을 들고 저는 오랫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도록 큰 감격을 안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헌금을 하신 성도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만 배로 채워 주실 것과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로 사랑의 집, 복지마을, 세계선교원이 하루 속히 건설될 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도록 소리없이 헌금하는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우리 충현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가슴에는 감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8년에 있었던 홍해작전 중 3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채를 40일 기도 작전으로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충현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의 가정 위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불비합니다.

이종훈 목사

방배 2동 화수단지 이재민에게 구호품 전달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는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서초구 방배 2동 남태령 화수단지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제환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일일 막노

동이나 파출부일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화재를 당해 그들이 살던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나온 구호금(1세대당 2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는 마련을 하였으나 내부 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딱한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교회는 구호미와 재해복구지원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며 또한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개척교회에도 강대상과 의자를 지원했다.

영어예배부

초청전도의 밤 개최

영어예배부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부터 만나 홀에서 부활절 초청 전도의 밤을 열었다. 영어예배에 참석하는 내·외국인과 가족, 친구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1부 손영준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제2부에서는 악기연주와 찬양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전도의 시간을 가졌다.

안석렬 선교사 새 임지에 도착

지난 1월 당회로부터 임지 변경을 승인받은 안석렬 선교사가 지난 3월 6일 파라과이를 떠나 3월 21일에 임지인 남미의 수리남에 입국하였다.

파라과이를 출발하면 하루만에 입국 가능한 수리남에 항공사측의 행정 착오로 15일만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 선교사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약 2주 동안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권에 대해

적응할 준비를 시키시고, 흑인에 대한 인종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안 선교사는 앞으로 수리남의 수도 파라과리보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시무하게 된다. 그 교회는 현재 6,7세대가 출석하고 있으며 성전과 사택을 공사 중에 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수리남 한인교회의 양적 부흥과 각종 건축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 및 안 선교사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원장 이영세 장로의 사회와 지도교역자 신표근 강도사의 사교로 예배를 드린 후 불교권, 가톨릭권, 회교·힌두교권, 공산권, 세속권으로 나누어 임명된 실행위원들은 각 권역에 따른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여 예수님께서 맡기신 선교사역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년 1부 연합찬양대회 갖기로

장년 1부는 오는 5월 20일 낮 12시 30분에 연합찬양대회를 개최한다. 이 찬양대회는 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요한전도회 및 파라과리보에 회원들이 장년 1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접수는 5월 13일까지 소석관 412호에서 받고 있다.

다목적

옥회 주차장 포장 완료, 명칭은 공모에 붙쳐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22일 주일 1부 예배가 끝난 후, 아스팔트로 마감하게 포장된 옥회 주차장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지난 2월 28일부터 정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약 2개월만에 완공된 것이다. 앞으로 주중에 우리 교회를 찾

는 모든 차량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통행이 제한되고 주차는 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 주차장을 다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당한 명칭을 공모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는다.

세계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임명

우리 교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선교관 501호에서 90년도 세계선교위원회 실행위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인간의 마지막 원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 8:51)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흙에서 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F. 베이컨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린이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하듯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유아기에 세가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는 어두움에 대한 공포이고 또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공포이며 나머지 하나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공포라고 합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을 때 용을 쓴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젓 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음을 면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도 나도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어야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 8:51)

물론 위 구절에서 가리키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불신자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그러나 성도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불신자는 어머니 태에서 한 번 태어난 후 육신과 영혼이 죽는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머니에게서 한 번 태어난 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육신이 한 번 죽게 된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잘 익은 곡식이 낫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이다.”

1. 약속 성취를 위한 조건

본문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린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지

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도 하는 일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명에 우상, 돈 우상, 열락의 우상 등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복음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주일과 다른 날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2. 약속의 결과는 영생

예수님께서도 죽으셨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죽었으며 종교개혁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

여기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하여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요즈음 안락사 문제가 때때로면서 새말 새간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로는 이에 대해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에 박동하면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머쪽 심장에 뛰어도 뇌파가 멈추면 이미 생명이 끝난 것 아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복종의 3개월까지는 생

명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잉태된 그 시간부터 생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논란 이상으로 많은 것이 죽음에 대한 논란입니다. 여러가지 생물학적인 이해, 도덕적인 이해로 죽음을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손가락을 자르면 잘라진 손가락이 벌떡벌떡 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 죽음에 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은 죄를 목표로 화살을 날립니다. 우리들에게 죄가 있으면 사망이 우리들에게 달려 옵니다. 그런데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러갔으므로 사망이 우리들을 쏘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둘째 사망을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곤란하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좋고 살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는 빨리 죽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아서 복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살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그저 고쳐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죽음을 맞보지 않기 때문에 첫째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3. 주님의 말씀은 진리

‘진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건고하다, 든든하다, 흔들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팔을 팔꿈치로 받쳐서 운반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동사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22장 23절에 나오는 것으로 못을 박을 벽이 든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아멘’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 물리하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되돌아 나와야 합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간고하여 쉽게 변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어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불변하시고 은혜가 불변하시고 약속이 불변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시는 데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 ‘아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할 때에 사용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멘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에 아멘이라고 하여 기도한 것에 대한 동의를 표합니다. 또 성경봉독 후에 아멘이라고 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아멘이 124회 나와 있고 문장 초두에 76회, 문장 마지막에 48회가 나옵니다. 문장 초두에 나타낼 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공격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불변하는 영원한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6~8세의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이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과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죄라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그분이 인간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알게 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

여 예배의 여러 형식과 관계에 익숙하게 하고 기타 행사에 참여하게 하며 교회의 선교적 과업에 흥미를 갖게 한다.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교회에서 배운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며 짧은 성경 구절을 기억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대인 관계에 관한 교육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한다. 모든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

는 나이에 맞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세계와 창조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과 관련을 맺어 생각하게 하며, 자연 세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과 안전함을 느끼게 한다. 예배, 기도, 그림, 음악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을 통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책임감을 일깨워 준다.

이 연령의 어린이들은 자신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갖

■ 탐방 - 학원 전도회

진리에 근거한 참 교육 위해 헌신



학원전도회는 우리 교회가 학원의 복음화와 진리에 기초한 참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89년 7월에 조직한 특수 전도부서이다. 이 전도회는 현재 회장 안병호 집사를 필두로 하여 초중고교 현직 교사 80여 명이 주일마다 중담 602호에 모여 봉사를 하고 있다.

학원전도회는 전도위원회 소속으로 직능별 전도회 중의 하나인데, 회원들은 교회학교의 각 부서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파하고,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문제를 위해 학교와 교회에서 교육 상담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저명인사들의 글로 이뤄진 글모음집 《모우리 나누리》를 창간할 예정이다. 그런데 《모우리 나누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편집과 그에 따른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교회 조직상 남녀전도회와 직능별 전도회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간과 일이 중복되어 봉

사하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2월 25일 고등부에서 주관했던 학부모 초청 좌담회때 다 같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게 되어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상한 교사로 정평이 나 있어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서는 호응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 종교에 편승된다는 이유로 학교측의 협박을 받기도 하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며 이겨낸다고 한다.

특히 회원들을 성도들 모두가 이 학원전도회의 참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진솔한 글들을 《모우리 나누리》에 투고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님의 전과 교육 현장에서 열심에 열심히 주의 일에 전념하는 학원전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길 바란다.

■ 연령별 학생이해를 위한 기독교 교육세미나 강의 요지

초등 1, 2, 3부를 위한 교육

강사 이영덕 교수
(서울대 교수, 본 교회 교육연구위원)



죄사함의 은총 안에서 평강을 느낄 수 있게 도와 준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자각을 심어주며 전도회의 의욕을 일깨워 준다. 어린이의 행동과 필요를 관련시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고 예배 참여 의식과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심어 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다운 사명 의식을 심어 준다. 또한 이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교회란 하나님을 배우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교회와 교회학교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출석하

음을 알게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 친하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기독교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적 사랑과 친절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 배운 생활 태도를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가족, 교회, 학교 등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협력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해낸 일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며 집단 내에서 그

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기적인 것과 비이기적인 것의 의미를 가려내는 통찰력을 길러 준다. 양성에 따라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악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체험하게 한다. 가정, 교회,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체득한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기독교인답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가 받아들이게 된 기독교의 원리들에 따라 중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독교 문화의 현주소



박 승 준 장로

최근의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가지 정황과 상황을 볼 때 창조주가 원하셨던 모든 것들이 퇴색해가는 느낌을 갖게 된다.

생명 경시 풍조로부터 환경 공해, 청소년 범죄, 마약, 폭력, 매춘, 살인, 그리고 인간 파괴의 주범인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질식과 몰락을 인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매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이 일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싸이고 있는 형편이다.

사랑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크리스찬들이 이기주의와 권위 의식에 치우쳐 불신자들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문학, 방송, 연예, 연극, 영화, 비디오 등

각종 문화 영역에서 십자가 사건의 진실한 면을 표현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쾌락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 풍조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무질서 속에 적그리스도인 이단종파의 우후죽순적 생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이단들의 횡포로 인해 순수신앙을 과수하고 이를 순종하며 따르려는 많은 성도들에게 미혹의 미끼를 주는 말세적 기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백주년을 기념하고 선교2세기를 향하여 출발음치고 있는 오늘에 있어 기념예배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와 기념관 건립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내걸었던 "새 일을 행하리라"는 표어에 나타난 다짐과 결심이 퇴색해가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문화의 단계적 성장이 둔화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한국 기독교 성도에게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방송과 아세아방송의 개국이 허락되고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국교가 정해지지 않는 한국 헌법의 합법성을 들어 지난 4월 15일에 개국된 가톨릭계가 운영하는 평화방송이나 오는 5월 1일에 개국하는 불교방송이 일천만 성도들의 가슴에 어떤 형태의 느낌으로 전달될는지 한번 묻고 싶다. 또 이단인 통일교가 세계일보를 발행하고 그 이외의 월간지들(세계여성, 광장)

을 호화판으로 발행하여 유가 혹은 무가로 이를 배포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느때까지 침묵으로만 답하겠는가?

이제는 연합하여 일치된 한국 교회의 능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을 한 손에 쥐었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적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못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사용해야 할 때가 왔다.

허울 좋은 기독교 간판을 앞세워 주님의 십자가는 땅에 파묻고 인본주의적 체면으로 신앙을 형상화하는 일부 지도자들의 무사안일도 이번 기회에 지적하고 싶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새 모습을 요청하고 싶다.

우리 일천만 성도들이 집약된 응집력을 활용하여 기독교문화위원회 혹은 매스컴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교단마다 설치할 것을 호소하고 싶고, 이에 따른 기독교문화연구원 설립도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일들은 한국기독교실업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대형교회들이 협력하여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또 전파매체인 영상을 통한 복음주의지향의 TV 방송국 설립도 꼭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교단 개교회들이 기독교문화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패역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폭넓은 기독교문화캠페인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 세기동은 송환장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항상 그리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결심하고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3월 21일 떠났다.

일정은 카이로-이스라엘-그리스-로마-런던-파리로 이어지는 16박 17일의 여정이었다.

서울을 출발하여 여러 경유지를 거쳐 약 20시간만에 이집트 카이로에 3월 22일 6시경 도착했다.

카이로 시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수 세기 동안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 묘지는 작은 돌집을 짓고 그 안에 관을 넣어 두는데 가족대대로 내려오며 쓰고 있었다. 또 오래되어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의 돌집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시내에는 고급 승용차가 질주하고 있는가 하면 우마차가 다니기도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심한 빈부의 격차를 알 수 있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초라했다.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로 갔다. 현재 자리한 도시보다 4~5미터 밑에 있는 도시인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기념교회란 아기 예수가 피난했던 곳으로 생각되는 곳에 새운 교회(가톨릭계)인데 지금은 자취가 많이 남아 있었다.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구경하는 마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가난에 찌들었지만 선량한 눈망을 들이다.

이튿날 버스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시나이 반도에 들어섰다. 곳곳에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다. 그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던 곳이다. 황토와 모래, 자갈들로 형성된 땅이며 풀 한포기 없는 말 그대로 광야였다. 낮에는 햇볕과 열기 때문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고 밤에는 한기 때문에 건디기가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 그런데 그런 기후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근거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모세의 샘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형태를 하고 있었다. 작은 웅덩이에 이끼가 낀 물이 고여 있었다.

다음날은 시내 산 등정을 하였다. 해맞이를 위해 새벽 2시부터 기상하여 3시부터 시내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산 높이는 2천3백미터로 한라산보다 높았다. 정상까지는 장장걸음으로 3시간 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일행은 한 사람에 10분씩 내고 낙타를 타고 갔다. 정상에 오르니 조그마한 교회(가톨릭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시내 산을 보기 전에는 수렵과 계곡 야생동물들이 있을 것으로 상상했었는데 주위가 점점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광경은 나를 놀

라게 했다. 산은 커다란 바위들과 돌, 흙으로만 뒤덮여 있었고 그 바위들은 기괴하면서도 웅장하고 검은 빛과 붉은 빛을 띠면서 우리 일행을 압도하고 있었다. 산 밑에는 캐서린이라는 수녀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별기나무가 보호되고 있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 흔한 산딸기 나무와 비슷했다. 또 수도승들의 유골을 수천 개나 모아 놓은 납골당이 있었고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아카바만에 도착했다. 아카바만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한 곳으로 무역항과 휴양도시가 밀집해 있는 전략적으로 요충지대이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직접 들고 걸어서 국경선을 넘어 이스라엘로 들어섰다.

이스라엘은 분위기부터 틀렸다. 깨끗하고 단정한 군인들과 상냥한 여군들의 안내를 받아 입국수속을 마쳤다.

노 광 헌 장로



사막 사이의 길 양편으로는 가로수가 울창하게 뻗어 있었다. 이곳의 모든 수목들-꽃나무, 과수, 가로수들은 지하관을 통하여 수시로 물을 공급받았다. 철조방울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이스라엘은 참으로 부서를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사해에 당도하였다. 사해는 보통 지면보다 4백미터나 아래 형성되어 있다. 위는 보통 소금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곳도 휴양지로 개발되어 호텔과 함께 울창한 열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사해는 소금의 비중이 어찌나 큰지 어린아이나 백 킬로그램이 넘는 사람이나 할 것없이 모두 바다 위에 둥둥 뜬다. 평소 수영을 못하던 사람도 사해에서는 가라앉을 염려없이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의 푸르름이 조금씩 더해갔다. 예루살렘은 6백미터의 고원지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시로 올라가는 길 양편에는 아직도 베드윈족이 양떼를 치며 원막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들의 생활이었다.

예루살렘에는 수백 년 된 옛건물들과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었고 옛날 복장 그대로의 사람들과 반바지,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살고 있었다. 그래서 금요일은 회교도가, 토요일은 유대인이, 일요일은 기독교인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보다 상당히 커졌다. 서울의 옛 사대문안과 지금의 서울 경계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구예루살렘 안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끌고다 헌덕과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은 좁은 서장골목과 많은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길 양편으로 기념품점, 푸줏간, 기름집, 잡화점 등이 오밀조밀하게 서 있었다. 이 서장길은 예수님시대 이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길이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복잡한 서장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셨다고 한다. 이 길로 지나가시게 한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초라한 죄인 예수를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며 또한 많은 야유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마다 기념교회(가톨릭계)가 세워져 있었다. 어떤 곳에는 몇번째 넘어 지셨던 곳이라고 담벽에 꼬리표로 표시되어 있기도 했다. 우리는 이곳에 멈추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곳에 장로교측 기념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계속)

현다락방

제 18과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

성경 : 신 6:4~9

요절 :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찬송 : 299, 301

설 명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비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계획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를 치료하는 것은 곧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물로 받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켜야 하며,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창3:15, 4:1, 25, 26).

(2) 자식을 주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창33:5; 시127:3~5; 잠17:6).

2.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애바지해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신6:9~10, 21:18~21; 엡6:4; 고전12:1, 15:5).

3. 다음 말씀을 통해 반성할 점을 찾아 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1) 나쁜 선례를 자식에게 보임(왕상15:26)

(2) 편애(창25:26, 37:3)

(3) 허영(하20:20, 12)

(4) 자녀를 노엽게 함(엡6:4)